7강 복음, 그 위대한 전환점 (5:11~6:2)

(읽을 말씀: 5:11~17)

오늘의 포인트

- 복음이 인생에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기
-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의 중요함을 이해하기
-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동기 점검하기

그리스도인 인생의 기승전결(起承轉結)에서 '전(轉)'은?

-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'전'을 설명한다.

사역의 동기

- 자신의 사도성을 거부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편지를 쓰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사도의 동기

주를 두려워함(5:11)—부정적 동기

(5:11) 우리는 **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**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

- 종말론적 두려움
    -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(10).
    -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직분을 따라 행했던 모든 일을 보고해야 한다.
    - 그러니 어찌 거짓으로 행할 수 있겠는가?
    - 지금 이 일에 고린도 사람들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다.
- 내 동기는 하나님께 알려져있다. "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"
    - 고린도 사람들도 사도의 동기를 알기를 바란다.

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(5:14)—긍정적 동기

(5:14)**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**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

-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압도하여 그로 하여금 사역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.
- 그리스도의 사랑 ≠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랑
  = 사도 바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
- 사역의 동기 = 그리스도께서 죄인이고 원수인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지식
-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아는 것은 언제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원이었다.
-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
    -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
    -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

두 가지 동기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변화된 삶과 사역의 특징

- 기독교 사역의 동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다.

새로운 피조물(5:17)—위대한 전환점

(5:17)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

새로운 피조물 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생각하게 함(창 1)

구원은 새 창조이다.

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가 아니라, 악에서 선을 만드시는 창조

삶의 목적의 변화(5:15):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.

(5:15)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

-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, 복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.
-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.

관점의 변화(5:16,12): 세상적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.

(5:16)그러므로 우리가 **이제부터는**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

(5:12)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

- '이제부터는'(16) =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
- 육체적/세상적 관점에서 영적 관점으로의 변화
- 세상적 관점 = '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' 태도(12)
- 지금 고린도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는 관점
    - 그는 추천서 하나 없다.
    -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.
    - 그는 웅변과 수사학(말)에 능하지 못하다.

    반면,
    - 이들은 좋은 추천서와 이력을 가지고 있다.
    - 이들에게는 수사학적 세련됨이 있다.

거짓교사들의 주장

"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고난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."

바울 사도의 도전

"너희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,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, 너희의 관점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바뀌었느냐?"

세상적 관점 vs. 영적 관점

- 세상적 관점
    - 이력과 경력과 직업과 신분, 소유와 성취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고,
    - 자신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들로 '자기 의(self-righteousness)'를 추구함
- 영적 관점
    - **하나님께서** 이 사람을 그리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?

- 사무엘과 다윗의 첫 만남(삼상 16:7)
- (삼상 16:7)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
-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만이 절대적이다.

복음—이런 본질적 변화를 초래한 근거

화목(reconciliation), 사신(ambassador) --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 개념

- 화목—죄와 불화를 전제로 하는 개념

죄

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켰다.
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는 모든 관계의 소외를 초래하였다.
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, 아담과 하와 즉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렸다.
그리고 죄는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단절과 소외를 가져왔다.

복음—화목하게 하는 사건

- 화목하게 하는 사건--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건을 이루셨다.

(5:14b)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
(5:18a)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

- 화목하게 하는 직분

(5:18b)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

- 화목하게 하는 말씀

(5:19)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

- 그리스도의 사신(ambassador)

(5:20)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

화목의 기원(origin)—하나님

(5:18a)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

화목의 수단(means)—그리스도

(5:18)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

복음의 선언과 초청

(5:20)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**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**

-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
    - “너희는 지금 나를 배척함으로써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.”
    - “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.”
-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?
    -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으므로, 너희는 이 선언, 이 초청 앞에 응답하라.
    - 믿음은 화목의 수단이 아니다. 화목의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시다.

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(6:1)

(6:1)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

- 고린도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,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증거--바울 사도의 직분을 거부함
- 그들이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물탄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.
-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길은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는 길 밖에 없다.
-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수록 물탄 복음을 분별하며 헛된 은혜에 만족하지 않는다.

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는 영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변화다(고후 3:18).

(3:18)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

-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.
-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조문의 직분이나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새언약의 직분의 시대가 도래했다.
- 새 피조물의 증거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교회를 가르칠 때 강조했고 고린도교인들이 추구했던 무아경 같은 영적 체험이 아니다.
- 새 피조물의 증거는 신자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,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변화다.

오늘의 적용

- 복음은 당신에게 위대한 전환점인가? 복음이 가져온 변화를 당신은 경험하는가?
    - 동기의 변화--주를 두려워함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
    - 목적의 변화—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
    - 관점의 변화—세상적/육신적 관점이 아니라 영적 관점
-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살라(6:2)

(6:2)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

-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역사적으로 다가오는 날이지만, 그날은 실존적으로는 멀리 있는 날이 아니다.